



내 몸의 이상신호 ‘녹내장’

박진우 보리안과병원 원장

빛 볼 때 달무리 생기면 빨리 안과로



박진우 보리안과병원장이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정기 안과 검진을 하고 있다.

녹내장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녹내장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0년 44만4000명에서 2015년 76만8,000명으로 5년간 73.1%(32만4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15년 기준으로 70대 이상이 26.2%를 차지했으며, 60대 이상까지 포함하면 전체 환자의 47.9%에 달했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등의 영향으로 10대 환자는 1만4258명, 20대 환자는 4만4104명이나 나왔다. 성별 진료 인원은 9세 이하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보다 남성 환자가 많았다.

◇**실명 일으키는 3대 질환**＝녹내장은 황반변성, 당뇨망막증과 함께 실명을 일으키는 3대 질환이다. 눈으로 받아들인 빛을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에 이상이 생겨 시야결손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실명에 이르게 하는 질환이다.

시신경이 손상되는 이유는 상승한 안압이 시신경을 눌러 손상되는 것과 시신경 혈류 장애가 생겨 손상이 진행되는 것 등이다.

이 밖에도 녹내장 가족력이 있고, 평소 안압이 높거나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및 근시를 가진 사람, 과거 눈에 외상을 입었거나 스테로이드 점안약을 장기 투여한 경우, 노화가 진행될수록 40세 이후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는 안압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혈류 이상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시신경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안압이 정상 수준인 경우에도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명 일으키는 무서운 질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최근 10~20대 환자 급증
한 번 진행되면 원상복귀 불가
40세 이후 연 2회 정기 검진을**

녹내장의 증상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환자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증상은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거나 야간시가 감소하고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긴다. 또 아침 일찍 혹은 저녁에 두통이 생기거나 시력이 뿌옇게 흐려지면서 눈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급성 폐쇄각 녹내장에서는 심한 두통과 구토 또는 빛을 보면 주위에 달무리가 생기는 증상을 보인다. 이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영구적으로 망막신경 절세포와 시신경이 손상돼 실명할 수 있다. 반대로 안압이 서서히 상승하거나 정상범위인 경우에는 시야 협착이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자각증상이 거의 없으므로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다.

◇**시신경 원상복귀 불가능**＝녹내장이 이미 진행돼 시신경이 손상되면 다시 좋아지지 않으며, 녹내장 치료를 하더라도 시신경 손상 진행속도를 늦추거나 멈추게 하는 것이지, 시신경을 본래의 상태로 돌릴 수는 없다.

정상안압 녹내장의 기본 원칙도 ‘안압을 녹내장이 더 진행되지 않는 정도로 충분히 낮춰주는 것’이다. 안압을 낮춰주는

방법은 약, 레이저, 수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약이 가장 효과적이다. 녹내장 안약으로 안압을 충분히 낮게 유지하고, 부가적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항산화효과가 있는 음식을 챙겨서 드시는 것이 좋다.

또 어두운 곳에서 너무 오랜 시간 있는 것을 피하고, 관악기나 풍선 같은 것을 많이 부는 것은 안압상승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너무 꼭 목이 끼는 옷이나 넥타이도 좋지 않다. 야채와 과일 등은 항산화물질이 많아 시신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담배는 꼭 중단하고, 술도 줄여야 한다.

◇**40세 이후엔 조기진단 필수**＝녹내장의 결과는 시신경과 시야의 결손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시신경이 지속적으로 손상되지 않는다면 안압이 설령 높다고 하더라도 녹내장은 어느 정도 조절됐다고 할 수 있다. 또 조기에 발견되면 녹내장 조절은 더 용이하다.

시신경의 손상이 생기기 전 녹내장을 발견했다면, 시신경의 손상을 아주 더디게 해 살아가는 동안 큰 이상 없이 지낼 수도 있다.

일단 손상된 시신경은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좁아진 시야와 나빠진 시력은 회복이 어렵다. 원칙적으로 녹내장이 안 생기도록 하는 방법은 없으므로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더라도 40세 이후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안과를 찾아 안압검사와 안저검사로 시신경의 모양을 확인받는 것이 좋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선교 거점병원 역할 충실히 수행 생명존중 선진 의료 서비스 제공”

최용수 신임 광주기독병원장

“개원 2세기를 맞은 광주기독병원 이 소외된 이웃을 품는 의료적 사명을 이어가고, 선교병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기독병원 제13대 병원장에 선임된 ‘적주질환 명의’ 최용수(55·정형외과 전문의)박사는 7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생명존중을 통한 의료서비스와 의료선교를 하는 광주기독병원의 미션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1988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4년 전남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최 병원장은 광주기독병원 정형외과 진료과장, QI실장, 대외 협력부장, 의료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탁월한 임상능력과 경영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미국 클리블랜드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등에서 척추질환 관련 연수를 받기도 한 최 병원장은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스 후즈후 등재, IBC 21세기 우수과학자 등에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척추질환 명의로, 광주기독병원 정형외과를 최고 수준의 진료과로 성장시킨 인물이다.

그는 이 같은 독보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척추외과학 교과서 분과 편찬위원, 대한척추외과학회 평의원, Asian Spine Journal Editorial Board, SCI 학술논문 포함한 국내외 논문 68편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심사위원 등 활발한 학술활동 및 대외활동을 이어오는 등 병원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광주기독병원은 9일 병원 예배실에서 제12대 박병관 병원장 이임 및 제13대 최용수 병원장 취임예식을 할 예정이다.

다음은 최용수 신임 병원장과의 일문 일답.

조선대병원, 해양수산부 ‘어업안전보건센터’ 재지정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배학연)이 ‘제2기 어업안전보건센터’로 지정됐다.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다.

조선대학교병원은 제1기 어업안전보건센터(2015~2017)에 지정돼 어업인 질환 및 업무상 재해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



**한국의 대표 척추질환 명의
로봇 수술 등 신의료기술로
광주·전남 대표병원 도약
진료과 목표 관리제·성과 중심
모두가 행복한 일터 만들 것**

◇취임소감＝현재 의료계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케어 등 각종 보건정책의 변화로 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 같은 엄중한 시기에 광주·전남 현대료를 대표하는 113년 전통의 광주기독병원을 맡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과거의 업적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힘을 생각이다. 특히 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

◇병원 운영 계획은＝가장 먼저 선교병원의 정체성 확립에 집중하겠다. 생명존중을 최우선으로 선진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국내 의료선교, 북한선교, 해외 의료선교, 내팔 NCF와 공동연합지역 지속 등 선교 거점 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병원의 미래 핵심 역량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과제다.

로봇 수술 등 특화한 신의료기술을 통해 의료시장 확대 및 병원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이와 함께 복강경 수술, 레이저 수술 등 최소 침습 수술 전문 병원으로 브랜드를 구축하는 한편 외래 진료 체계 다양화를 위한 통합 통증센터 운영, 내시경 센터 특화 및 확장 등 광주전남 대표병원으로 새롭게 도약하겠다.

진료과 목표 관리제와 성과 중심의 전략적 경영도 주요 운영 계획 중 하나다.

진료과 목표 관리제에 따른 책임 경영을 적용하고, 진료 실적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 또 응급센터에 응급의학과 과장을 증원하는 등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병원 직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소통과 화합을 약속하고 싶다. 병원발전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만나 낯은 자세로 경청하는 등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 병원의 발전은 힘든환경에도 묵묵히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위로와 격려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개원 2세기 병원경영의 소통과 비전 공유를 위해 올 상반기 모든 직원과 함께 병원 미래 발전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발전을 향한 내부 소통과 비전 공유를 위해 미래희망위원회를 운영하고, 준비된 중장기 전략을 수행할 장의 인재 확보 및 스타 프로젝트로 병원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동안 연간 3억원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는 물론 교육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송한수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어업안전보건센터장은 “1기의 활동 성과를 기반으로 전남 도서지역 어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질량 연구와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리치공인중개사

부동산 매매

-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593외 6필지
- 펜션, 체험장, 캠핑장, 전원주택, 수련원 옆 미술관, 커피숍, 별장 가능 1,800㎡(5,000평)
- 설산바위와 설산저수지(가운데 토지)
- 대형차량 출입가능, 조망 좋은 남향

● 매매가 8억원

매매

- 광주 남구 주월동 도로접 646㎡(전) 국제양궁장 옆, 전망 최고
▶매매가 1억1천만원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 608-12 4개필지, 893㎡(전), 단독주택 가능 전원생활 하실분, 화순CC 옆, 남향 바로 앞 물이 흐름
▶매매가 6천만원

부동산 매매

-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산26-1외 2필지
- 전원주택, 편백숲, 택지분양, 캠핑장·텐트촌, 체험장 가능 30,000㎡(9,000평)
- 대형차량 출입가능
- 달맞이 공원에서 50m

● 매매가 7억원

주인 직거래 010-4602-9264 / 010-4013-2880